

건축분야에 잔존하는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과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이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초 당국이 표명한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대책은 실로 우리나라 건축풍토의 어두운 면을 새삼 들춰내어 세상에 다시 한번 치부를 보여 준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실성을 의심케

물결치게 되면서 부터 건축분야도 그 영향을 받아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던 비위행위가 사그러들고 정상적인 건축풍토가 어느정도 조성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건축풍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조리의 음성화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만성병적인 조짐을 보여 당국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한나라의 문화가, 그것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문화가 허다한 부조리 속에서 생성되고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따져볼 것도 없이 실로 수치스러운 뿐이다.

부조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다. 즉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제대로 돼야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조리가 끼어들어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일이 마무리 되고 결국 조화의 균형을 잃어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불량·부실건축물의 양산이 바로 건축행위에 부조리가 끼어들어 만들어 놓은 작품의 표본이다.

면허를 빌어 얼렁뚱땅 지어놓은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질리 없고, 명의만을 대어해 줬으니 요모조모 내집처럼 알뜰하게 보살피 줄리 없으며, 무허가로 건축행위를 하니 적당히 지어놓기 십상인 것은 불을 보듯 밝은 이치이다. 모든 절차 따위는 은근슬쩍 치뤄지게 마련이고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일반 소비자요, 비단 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귀한 인명의 피해까지도 불러들인 경우가 허다했다.

앞서도 밝혔듯이 건축관련 부조리의 발생요인은 비단 어느 한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그리고 관계공직자를 비롯해서 건축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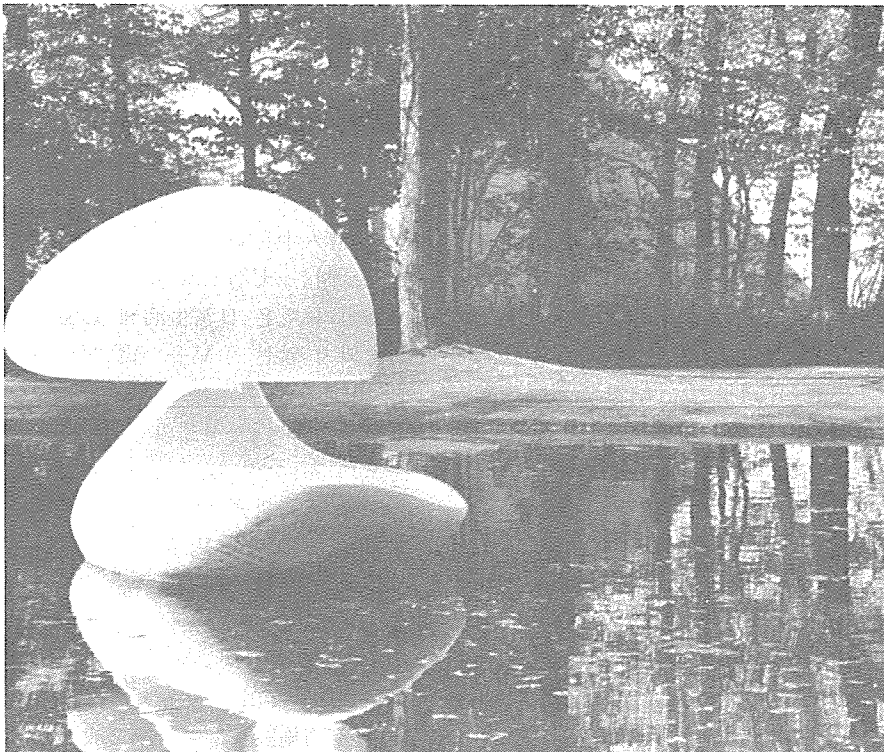
심지어 소비자 쪽인 건축주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조리를 조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제 앞으로는 건축문화를 책임지는 건축인들에 의해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한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적인 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갖고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당국의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 건축의 장래를 생각하는 값있는 의식에서 이 작업은 필요하다. (*)

□淨化/칼럼

‘作品’을 남긴다는 ‘崇高한 使命感’ 필요

建築不條理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건축계의 비위는 한때 사회악으로 일반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악명의 주인공이었으며 그만큼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건축계 자체 뿐만 아니라 타분야에 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바 있음은 두루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정의로움이 구현되는 새 기풍이 차츰

당국이 발표한 건축부조리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를 인식하고도 지금까지 건축 행위를 해온 건축인들의 양식이 국민들에 의해 여지없이 지탄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건축부조리 가운데는 건축주, 즉 일반국민에 의해 싹이 트는 부조리도 없지 않으나 이를 받아들인 일차적인 책임은 건축관계인임은 부인